

일반 재가노인을 위한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공은희¹ · 정영순²

경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¹,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²

The Effects of a Dementia Education Program for the Aged

Kong, Eun-Hi¹ · Jeong, Young Soon²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n University, ²President, Jeong Guan, Jongno Senior Welfare Center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a dementia education program for Korean older adults who resided in community. **Methods:** The research adopted the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A total of 66 older adults completed the study (31 older adul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35 in the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a six-session dementia education program for three weeks. The effects of the dementia education program were evaluated using the measures of knowledge of dementia and attitude toward dementia. Data were analyzed using independent sample t-test with SPSS/WIN 18.0.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the knowledge of dementia in the experimental group ($t=2.75$, $p=.008$). Although there was an increase in attitude toward dementia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chang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1.26$, $p=.212$).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dementia education program is effective in improving the knowledge of dementia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There is a need to develop more effective dementia education programs designed to improve older adults' attitude toward dementia. Further research is needed using a highly rigorous research methodology.

Key Words: Dementia, Education, Program evaluation, Aged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노인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치매노인 인구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치매 유병률은 8.8%로 추정(Kim, 2010)되고 있고 치매노인 인구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Joo, 2004; Lee, Park, Choi, & Lee, 2005). 우리나라 노인들은 치매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있으며, 치매를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고, 가족에게 무거운 부담감과 피해를 주는 심각한 질병으로 치매를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n, 1994; Kim, 2006; Lee, 2001).

치매는 질병특성상 조기 진단, 조기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 자신의 치매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Han, 1994)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최근 지역사회의 많은 노인건강 관련기관(보건소, 노인복지관, 치매센터, 노인병원)에서 일반 재가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으로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

주요어: 치매, 교육, 프로그램 평가, 노인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ong, Eun-Hi,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n University, San 65 Bokjeong-dong, Sujeong-gu, Seongnam 461-701, Korea, Tel: 82-31-750-5984, Fax: 82-31-750-8859, E-mail: ehkong@kyungwon.ac.kr

- 이 논문은 2011년도 경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KWU-2011-R122).

투고일 2011년 7월 16일 / 수정일 2011년 8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1년 9월 7일

기 시작하였으나,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서 문헌에서 알려진 것이 매우 미비하여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계획, 실시, 평가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야기되고 있다.

Choi (2007)는 우리나라 일반 노인들의 치매 예방 및 조기검진 프로그램의 참여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고, 60% 이상의 노인들이 치매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참여한 노인도 대부분 일회성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일반 노인들은 치매에 대한 질병지식(Kim, 2007; Lee, 2001), 치료 및 관리(Kim, 2007)에 대한 기본지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치매에 대한 인식증가에도 불구하고 치매에 대한 정서적 태도가 여전히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2007).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후 지식과 태도에 대한 효과를 검증한 연구로는 한편의 논문(Choi, 2006)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일부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교육시간이 매우 적다는 면에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Choi, 2006). 국외의 문헌에서도 일반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고한 연구는 매우 희박하며, 현재까지 한편의 논문이 보고되고 있다(Fujishiro et al., 2005).

결론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치매에 대한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실시,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며, 그 효과에 관한 연구는 국내와 국외 모두에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치매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반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일반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 치매에 관한 지식, 치매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 일반 노인들에 대한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험군의 치매에 대한 지식, 치매에 대한 태도를 대조군과 비교한다.

3. 연구가설

가설 1. 치매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치매에 대한 지식점수 증가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치매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치매에 대한 태도점수 증가가 높을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소재 일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 사후 유사 실험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소재 일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며,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한 93명의 재가노인이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연령이 60세 이상인 자로서, 인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심각한 신체적 문제가 없는 자이며, 최근 6개월 동안 치매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 연구가 실시되는 전 기간 동안 다른 치매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 없는 자이며, 본 연구목적과 연구과정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였다.

사전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실험군 41명, 대조군 52명으로 총 93명이었으며, 대상자의 실험군과 대조군으로의 배정은 대상자의 평상시 복지관 방문 횟수와 시간, 연구기간동안 대상자의 다른 일정 및 계획등을 고려하여서 이루어졌다. 사전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중 실험군 10명, 대조군 17명이 가족 및 친인척 방문, 여행, 건강상의 문제, 집수리, 이사 등의 사유로 중도 탈락되어서 사후 조사까지 참여한 대상자는 실험군 31명, 대조군 35명이었다. G*power 3.0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t-test, 효과크기 .5, 유의수준 .05로 계산하였을 때 pretest-power analysis의 검정력은 .77이었고, posttest-power analysis에서의 검정력은 .64이었다.

3. 연구도구

1) 치매교육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치매교육 프로그램은 관련된 선행연구들(Choi, 2006; Choi, 2007; Kim, 2007; Lee, 2001)을 참고하고, 본 연구자 2인, 복지관 교육담당 사회복지사, 복지관 교육담당 직원 2인들이 총 3차례에 걸쳐서 팀회의를 진행하여서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개발 및 보완하였다.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일반 노인들에게 치매 관련교육을 제공하고, 치매와 관련된 직접적, 간접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서 치매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치매교육 프로그램은 주 2회씩 3주 동안 총 6회(총 8.5시간)로 구성하여서 제공하였으며 각 회기별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Table 1).

1회기에서는 치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 및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치매의 정의, 치매의 종류, 치매의 증상, 치매예방, 치매예방을 위한 일상활동들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여서 1시간 동안 교육을 제공하였

다. 2회기에서도 치매에 대한 이해와 지식 및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정상적인 노화증상, 치매의 증상,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 치매의 위험요인, 뇌졸중과 치매의 관계, 치매예방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시켰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1회기에 교육한 일부 내용(치매의 증상, 치매예방)들을 2회기에 반복적으로 포함시켜서 1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였다. 3회기에서는 치매간호에 대한 이해증진과 체험을 목표로 하였고, 서울특별시 소재 일개 치매전문요양시설을 2시간 30분 동안 견학하였다. 시설방문일정은 기관 소개, 시설 라운딩, 제공하고 있는 케어서비스 관찰로 구성되었다. 4회기에서는 치매의 과정, 치매 케어 방법, 가족의 부양부담, 가족 구성원간의 화합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과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표로 치매를 주제로 한 영화(내일의 기억)를 2시간 동안 감상하였다. 5회기에서는 치매에 대한 이해를 증진, 웃음치료의 치매 예방효과, 웃음 실천을 목표로 하였으며, 내용은 치매(개념, 원인, 증상),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웃음의 효과, 웃음을 위한 준비활동, 웃음요법 실시, 웃음실천 선서들로 구성하였고 1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였다. 6회기에서

Table 1. Contents of Dementia Education Program

Session	Duration (hr)	Title	Contents
1	1	Understanding dementia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finition of dementia • Type of dementia • Symptoms of dementia • Prevention of dementia • Daily activities for prevention of dementia
2	1	Understanding Dementia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rmal aging • Symptoms of dementia • Differences between forgetfulness and dementia • Risk factors of dementia • Relationship of stroke and dementia • Prevention of dementia
3	2.5	Visiting nursing 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roduction to nursing home • Rounding nursing home • Watching dementia care in the nursing home
4	2	Watching movi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tching a movie of "Memory of Tomorrow": A story of a man with Alzheimer's disease and his family members
5	1	Laughter therap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finition, causes, and symptoms of dementia • The positive effect of laughter on prevention of dementia • Laughter therapy education and practice • Swear of practice of laughter
6	1	Yoga therap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positive effect of yoga on the prevention of dementia • Yoga therapy education and practice

는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활동의 실시를 목표로 하였으며, 내용은 치매예방과 관련된 요가의 긍정적 효과, 요가교육 및 실시로 구성하였고 1시간동안 교육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교육은 치매노인 간호 전문가 3인(간호학과 교수 2인, 치매센터 직원 1인)과 요가 전문강사가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진행은 대상자들과 친밀하면서 노인 관련 프로그램의 수행 경험이 많은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담당하였고, 자원 봉사자 2인이 프로그램의 진행 보조를 담당하였다.

2) 치매지식

치매에 대한 지식은 Cho (1999)가 개발한 치매지식에 관한 도구 16문항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내용은 치매의 위험요인, 기능변화, 치료 및 예방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점수범위는 0~16점이다. Cho (1999)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7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66$ 이었다.

3) 치매태도

치매에 대한 태도는 Cho (1999)의 연구에서 적용한 도구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에서 치매에 대한 태도는 정서적 태도(5문항), 행동적 태도(5문항)를 의미한다. 이 도구는 5점 척도로 점수범위는 1점(매우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도구이며, 부정적 문항(정서적 태도 5문항)들은 역으로 점수를 계산한다. 선행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76$ (Kim, 2007)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59$ 이었다.

4. 자료수집

연구자가 서울특별시 소재 노인복지관들을 방문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이중 일개 노인복지관에서 연구 참여를 동의하였고, 노인복지관의 연구협조 동의서를 받은 후, 복지관 책임자와 교육담당 사회복지사들의 협조를 얻어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에 대한 홍보는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복지관 게시판, 복지관 홈페이지, 배포지, 외부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여서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기간은 2009년 7월 21일부터 2009년 8월 21일

까지 총 4주였다. 연구대상자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 연구절차, 치매교육 프로그램내용, 참여기간, 연구참여의 위험과 혜택, 자료의 비밀보호, 연구참여의 자율적 결정·거부·중단에 대한 참여자의 권리,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충분히 이해했음을 확인한 후, 연구참여에 구두와 서면으로 동의한 노인들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실험군에게는 치매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에 사전 조사를 하고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3주간, 6회에 걸쳐서 제공한 후,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험군 대상자의 치매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유지, 격려하기 위하여 명찰, 참여 확인 스티커, 다과를 제공하였고, 프로그램 종료 후 치매간이검사 결과지, 활동사진, 수료증,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대조군에게도 사전 조사를 하고, 실험군의 치매교육 프로그램 실시 동안에는 아무런 중재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실험군 교육 프로그램의 종료 후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후에 대조군에게도 치매교육, 교육자료, 다과,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 .05에서 양측검정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종속 변수들에 있어서 동질성을 측정하는 동질성 검사는 χ^2 -test 또는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처치 전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치매에 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 비교는 independent sample t-test, paired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전체 대상자는 성별은 여자가 68.2%였고, 연령은 71세에서 85세의 노인이 59.1%로 가장 많았다. 교육정도는 국졸 이하인 노인이 50%로 가장 많았고, 종교는 기독교 또는 천주교인 노인이 65.2%로 많았다. 건강상태는 57.6%의 노인이 “보통이다” 또는 “건강하다”라고 하였으며, 치매를 앓았거나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이 있느냐는 질문에 72.7%의 노인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치매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별, 연령, 학력, 종교, 건강상태, 치매가족 유무 모두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치매에 관한 지식과 태도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치매에 관한 지식과 치매에 관한

태도에 대한 동질성 검정의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집단으로 나타났다(Table 3). 치매교육 프로그램 참여전 전체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점수는 평균 9.1 ± 2.53 점, 실험군의 치매에 대한 지식 점수는 평균 9.3 ± 1.97 점이었으며, 대조군의 치매에 대한 지식 점수는 평균 8.9 ± 2.96 점이었다. 전체 대상자의 치매에 관한 지식문항 정답률(Table 4)을 보면 전체 16문항 중 정답률이 50% 이하인 문항은 총 7문항이었다. 각 문항을 살펴 보면, “치매노인을 위해서는 환경을 자주 바꾸어주면 도움

Table 2.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66)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31)	Cont. (n=35)	Total (n=66)	χ^2 or t	p
		n (%)	n (%)	n (%)		
Gender	Male	8 (25.8)	13 (37.1)	21 (31.8)	0.97	.324
	Female	23 (74.2)	22 (62.9)	45 (68.2)		
Age (year)	60~65	1 (3.2)	6 (17.1)	7 (10.6)	6.93	.074
	66~70	7 (22.6)	12 (34.3)	19 (28.8)		
	71~85	23 (74.2)	16 (45.7)	39 (59.1)		
	86~90	0 (0.0)	0 (0.0)	0 (0.0)		
	≥91	0 (0.0)	1 (2.9)	1 (1.5)		
Education	≤Elementary school	21 (67.8)	12 (34.2)	33 (50.0)	10.65	.100
	Middle school	2 (6.5)	9 (25.7)	11 (16.7)		
	High school	3 (9.7)	6 (17.1)	9 (13.6)		
	≥College	5 (16.1)	6 (17.1)	11 (16.7)		
Religion	None	3 (9.7)	5 (14.3)	8 (12.1)	6.81	.146
	Protestant	6 (19.4)	13 (37.1)	19 (28.8)		
	Catholic	16 (51.6)	8 (22.9)	24 (36.4)		
	Buddhism	6 (19.4)	8 (22.9)	14 (21.2)		
	Others	0 (0.0)	1 (2.9)	1 (1.5)		
Health status	Very good	0 (0.0)	4 (11.4)	4 (6.1)	11.00	.051
	Good	5 (16.1)	5 (14.3)	10 (15.2)		
	Normal	13 (41.9)	15 (42.9)	28 (42.4)		
	Bad	9 (29.0)	8 (22.9)	17 (25.8)		
	Very bad	4 (12.9)	0 (0.0)	4 (6.1)		
Family member with dementia	Yes	7 (22.6)	9 (25.7)	16 (24.2)	2.02	.365
	No	24 (77.4)	24 (68.6)	48 (72.7)		

Note. No response is excluded.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Table 3.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N=66)

Variables	Exp. (n=31)	Cont. (n=35)	Total (n=66)	t	p
	M±SD	M±SD	M±SD		
Dementia knowledge	9.3±1.97	8.9±2.96	9.1±2.53	0.61	.542
Dementia attitude	35.3±4.71	36.6±5.94	36.0±5.39	-0.98	.330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이 된다(18.2%)”, “치매는 유전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다(36.4%)”, “나이가 들면 노화에 의해 누구나 치매에 걸린다(42.4%)”, “치매는 음주와 관련이 있다(43.9%)”, “치매는 조기 발견이 불가능하다(47.0%)”, “남자가 여자보다 치매에 잘 걸린다(50.0%)”, “치매에 걸려도 평소 좋아하던 일들을 즐길 수 있다(50.0%)”로 나타났다(Table 4). 실험군의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전과 후의 변화를 치매에 관한 지식문항별로 살펴보면 12문항에서는 점수가 향상되었으나 4문항(치매는 병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은 나이에 비례한다; 치매에 걸려도 평소 좋아하던 일들을 즐길 수 있다; 치료 가능한 치매도 있다)에서는 점수의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실험군의 paired t-test) 향상된 지식문항들은 “싱겁게 먹고, 균형에 맞는 식사는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다”(t=-2.257, p=.031)와 “치매는 약물로 완치된다”(t=-3.503, p=.001)이었다.

치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 전체대상자의 점수는 36.0±5.39점, 실험군의 평균점수는 35.3±4.71점이었고, 대조군의 평균점수는 36.6±5.94점으로 나타났다(Table 3). 전체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태도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최고점수 5점에서 행동적 태도를 나타내는 5문항에서는 모두 평균점수 4점 이상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정서적 태도를 나타내는 5문항 중에서 3점이상이 나온 문항은 단지 한 문항 “가족중 치매에 걸린다면 그 사실을 숨기고 싶다(4.0±1.30)”만 나타나고 나머지 4문항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났다: “치매 환자는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2.2±1.31)”, “치매는 개인적인 문제이며, 사회문제는 아니다(2.7±1.54)”, “치매 환자와 가능한 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2.7±1.40)”, “치매에 걸린 노인은 그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돌아가시는 것이 낫다(2.2±1.38)”(Table 4). 실험군의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참

Table 4. Dependent Variables of Total Participants in Pretest

(N=66)

Variables	Items	n (%) or M±SD
Dementia knowledge	As growing older, everybody may have dementia due to aging	28 (42.4)
	Dementia is a disease	52 (78.8)
	Dementia is related to genetic factors	24 (36.4)
	Dementia is related to drinking alcohol	29 (43.9)
	Dementia is caused by medical, neurologic, or psychiatric diseases	35 (53.0)
	Man is more susceptible to dementia than woman	33 (50.0)
	The risk of dementia is positively related to old age	46 (69.7)
	Dementia elder remembers well recent event rather than past event	37 (56.1)
	Dementia elder is disoriented, wanders, and can not recognize a person	55 (83.3)
	Dementia elder can enjoy usual favorite things despite dementia	33 (50.0)
	Dementia can not be detected early	31 (47.0)
	Less salt diet and balanced diet are effective in preventing dementia	43 (65.2)
	Regular life style and physical checkup help preventing dementia	58 (87.9)
	There are curable dementias	48 (72.7)
	Dementia can be cured by medications	36 (54.5)
	Changing environment frequently helps dementia elder	12 (18.2)
Dementia attitude	Emotional attitude	
	Dementia elder seems to be useless	2.2±1.31
	Dementia is not a social problem but an individual problem	2.7±1.54
	I don't want to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dementia elder	2.7±1.40
	It would be better for dementia elders to die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2.2±1.38
	I would like to hide the fact that my family member has a dementia	4.0±1.30
	Behavioral attitude	
	I would like to take a simple test for the diagnosis of dementia	4.3±1.04
	I think that it is important for people to pay attention to dementia	4.3±0.93
	I usually watch recent information and prevention methods of dementia on media	4.5±0.75
	I hope that there are more dementia-focused institutions	4.7±0.75
	Dementia should be managed at the nation level	4.5±0.95

여 전과 후의 변화를 치매에 대한 태도문항별로 살펴보면 7 문항에서는 태도가 향상되었으나 3문항(가족중 치매에 걸린다면 그 사실을 숨기고 싶다; 나는 일반인이 치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치매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시설이 더 생겼으면 한다)에서는 점수의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실험군의 paired t-test) 향상된 태도문항은 “치매에 대한 대책은 국가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t=-2.380, p=.024)이었다.

3.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1) 치매지식

치매에 관한 지식은 치매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평균 9.3점에서 10.8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평균 8.9점에서 8.7점으로 감소하였다(Table 5). 실험군의 paired t-test 결과에서 p=.003으로 나타났고,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t=2.75, p=.008) 가설 1은 지지되었다(Table 5).

2) 치매태도

치매에 관한 태도는 치매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평균 35.3점에서 36.8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평균 36.6점에서 36.7점으로 증가하였다(Table 5). 실험군의 paired t-test 결과에서 p=.050으로 나타났고,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한 결과 두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t=1.26, p=.212) 가설 2는 기각되었다(Table 5).

걱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서 노인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 재가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노인들의 치매지식과 태도에 대한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 선행연구결과와의 비교 및 추후 연구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사전 조사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들의 치매에 관한 지식문항 정답률을 보면 전체 16문항 중 정답률이 50% 이하인 문항은 총 7문항이었는데, 이중 4문항(“치매노인을 위해서는 환경을 자주 바꾸어 주면 도움이 된다”, “치매는 유전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다”, “나이가 들면 노화에 의해 누구나 치매에 걸린다”, “남자가 여자보다 치매에 잘 걸린다”) 들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Kim, 2007)에서도 정답률이 10~30%로 낮게 나온 문항들로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의 사전 조사에서 전체 대상자들의 치매에 대한 태도문항조사 결과도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Kim, 2007)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Kim (2007)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행동적 태도의 5 문항들은 5점 만점에서 모두 4점 이상의 긍정적인 태도가 나왔고, 정서적 태도의 문항들은 중간정도의 점수가 나타났으며, 이중에서 “가족 중 치매에 걸린다면 그 사실을 숨기고 싶다”는 문항만 3점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치매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에 실험군의 치매에 대한 지식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대조군과의 비교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일반 재가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효과를 평가한 선행연구(Choi, 2006)의 결과를 지지한다. 그리고 치매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제공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Featherstone, James, Powell, Milne, & Maddison, 2004; Kong, 2010; Tannazzo, Breuer, Williams,

논 의

치매노인의 급격한 증가와 그로 인한 많은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치매에 대한 많은 관심과

Table 5. Comparison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N= 66)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t [†]	p	Difference	t [†]	p
		M±SD	M±SD			M±SD		
Dementia knowledge	Exp. (n=31)	9.3±1.97	10.8±2.39	-3.19	.003	1.5±2.59	2.75	.008
	Cont. (n=35)	8.9±2.96	8.7±3.09	0.44	.661	-0.2±2.29		
Dementia attitude	Exp. (n=31)	35.3±4.71	36.8±4.35	-2.05	.050	1.5±4.04	1.26	.212
	Cont. (n=35)	36.6±5.94	36.7±5.10	-0.14	.887	0.1±4.71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paired t-test; † t-test.

& Andreoli, 2008)에서 보고된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치매 지식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도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6회의 치매 프로그램의 참여 후에도 실험군의 치매에 대한 지식점수가 16점 만점에 10.8점이 나왔으며, 총 16문항 중 4문항에서는 지식점수의 향상이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일반 노인들의 치매지식을 더 많이 향상시킬 수 있도록 치매 프로그램의 내용과 실시에 있어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며, 증가된 치매지식이 유지되는 기간을 측정하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후에 실험군의 치매에 대한 태도점수가 훨씬 향상되었고, 실험군의 paired t-test 결과 $p=.050$ 으로 나타났으나, 대조군과 비교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치매교육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치매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에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부족했거나, 본 연구의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실시기간이나 횟수가 충분하지 못했거나,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수가 적었거나,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거나,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무작위 할당이 아닌 것이 원인이었을 거라고 해석된다.

또한 상이한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측정도구를 사용하여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고한 국내 선행연구(Choi, 2006)에서는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치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여서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의 결과와 상반되게 나타났다. 그러나 치매노인을 돌보는 간호자들을 대상으로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에 그 효과를 측정하는 선행연구들(Chodosh et al., 2006; Featherstone et al., 2004)의 결과에서도 치매에 관한 태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유사한 내용의 치매교육 프로그램과 측정도구들을 사용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치매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2007; Kim, 2009). 따라서 치매에 대한 지식습득이 치매에 대한 태도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동기와 의의, 반복학습, 긴 시간, 높은 강도, 시행착오들이 필요하며, 특히 노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연령대의 대상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 높은 강도, 반복학습, 강화들이 요구된다(Choi et al., 2007)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자들을 일개 노인복지관에서 모집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에 무작위 할당을 하지 못했으며, 대상자의 수도 적어서 그 결과를 전체 일반 노인에게로 확대, 일반화 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측정도구들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이 약간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도구들의 측정문항수가 적은 점과 일부 부정적 문항들이 노인 대상자들이 설문응답에 있어서 어려웠을 가능성 등이 추정된다. 이러한 측정도구들의 낮은 신뢰도를 고려하여서 본 연구결과에 대한 측정오차를 감안하고, 연구결과를 해석, 일반화 하는 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일반 재가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치매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보고된 대부분의 치매교육 프로그램 관련 연구들은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 간호자나 노인시설에 근무하는 간호 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들이다(Han, 2003; Kong, 2010; Shin, Kim, Cho, & Kim, 2003; Shin, 2007). 국외의 선행문헌에서도 일반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태도에 대한 효과를 보고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상태이고(Fujishiro et al., 2005), 현재까지 수행된 치매교육 프로그램 관련 국외연구들은 주로 치매노인을 돌보는 간호자(Chodosh et al., 2006; Featherstone et al., 2004; Kong, 2010; Kuske et al., 2009; Lerner, Resnick, Galik, & Russ, 2010)들을 대상으로 치매지식 및 간호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보고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단지 일부 소수의 국외 연구에서 학생(Fruhauf, 2007; Miller, 1989)들을 대상으로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 지식과 치매에 대한 태도에 대한 효과를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 재가노인들을 위한 치매교육 프로그램 계획, 적용, 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써 지역사회에 다양한 노인건강 관련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내의 유일한 관련 선행연구(Choi, 2006)에서는 교육시간이 총 2시간에 불과한 점을 수정, 보완하여서 본 연구에서는 주 2회씩 3주 동안 총 6회, 총 8.5 시간 동안에 걸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들은 기존의 치매교육 관련 문헌들에서 자주 사용된 측정도구들을 사용하여

서 다른 대상자(간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학문적,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는 서울특별시 소재 일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 사후 유사 실험연구로서 실험군 31명, 대조군 35명으로 총 6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치매교육 프로그램은 총 6회로 구성 및 제공되었고,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일반노인의 치매에 관한 지식 및 태도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결과 치매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치매에 대한 지식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치매교육 프로그램이 일반 노인의 치매지식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치매에 관한 태도는 치매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에서 교육 후 평균점수가 훨씬 증가하였으나, 실험군과 대조군 두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치매교육 프로그램이 치매태도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서 추후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언한다.

첫째, 일반 재가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국내와 국외에서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국내에서 수행된 유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차이점이 있으므로 반복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일반 노인의 치매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대상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서 치매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개발, 수정, 보완, 적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실시시간이나 횟수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인 교육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연구참여 대상자의 수의 증가,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무작위 할당, 노인의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측정 도구들의 개발 및 활용,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지속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장기적인 종단적 연구들이 필요하다.

넷째, 농촌 노인이 도시노인보다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더 부족한 것(Kim, 2009)을 감안할 때 추후연구에서

는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치매교육 프로그램의 실시와 효과평가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Cho, H. O. (1999). *A study on public's knowledge of and attitude towards dement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Chodosh, J., Berry, E., Lee, M., Connor, K., DeMonte, R., Ganiats, T., et al. (2006). Effect of a dementia care management intervention on primary care provider knowledge,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quality of care.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54(9), 311-317.
- Choi, J. (2006). *A study on elderly people's reception of preventive education program for dement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unin.
- Choi, J. A. (2007). *A study on participation in a program for dementia prevention and early medical checkup for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Choi, Y. H., Shin, K. L., Ko, S. H., Kong, S. J., Kong, E. S., Kim, M. A., et al. (2007). *Older adult and health* (3rd ed.). Seoul: Hyunmoonsa.
- Featherstone, K., James, I. A., Powell, I., Milne, D., & Maddison, C. (2004). A controlled evaluation of a training course for staff who work with people with dementia. *Dementia*, 3(2), 181-194.
- Fruhauf, C. A. (2007). Innovative practice. Helping students understand aging and dementia: An innovative program. *Dementia*, 6(1), 157-162.
- Fujishiro, H., Umegaki, H., Suzuki, Y., Nakamura, A., Hirakawa, Y., & Iguchi, A. (2005). Awareness of dementia in older adults attending dementia-prevention programs in community healthcare centers. *Japanese Journal of Geriatrics*, 42(3), 340-345.
- Han, D. H. (1994). A study of the elderly attitude toward senile dementia.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4(1), 69-83.
- Han, H. S. (2003). *The development and its effectiveness of the group program on empowerment for the senile dementia caregiv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am University, Gwangju.
- Joo, H. (2004). *Research on social problems with dementia and solutions for improvement-concentrating on public understanding of dement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Incheon, Incheon.
- Kim, A. S. (2007).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dementia of the elderly in Gangwon-do*.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Kangneung.

- Kim, H. J. (2006). *A study of the cognitive faculties of dementia of the aged people in Seoul grasping the general trait: Using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 Kim, J. O. (2009).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dementia of the elderly in rural and urba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Kim, N. C. (1999). A study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senile dementia of the elderly.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3(2), 1-11.
- Kim, W. (2010). Two years into LTCI implementation: Experience and policy vision. I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d.), *International symposium on performance-oriented development measures fo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pp. 33-63).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ng, E. (2010). The effects of dementia education program on certified geriatric caregivers in a nursing hom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9(4), 349-358.
- Kuske, B., Luck, T., Hanns, S., Matschinger, H., Angermeyer, M. C., Behrens, J., et al. (2009). Training in dementia care: A cluster-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training program for nursing home staff in Germany.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1(2), 295-308.
- Lee, I. J. (2001). *A research on the understanding of dementia by the ag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llym University, Chuncheon.
- Lee, S. Y., Park, H. R., Choi, S. E., & Lee, S. J. (2005). Depression and depression relating variables for caregivers of patients with dementia in hom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4(3), 250-259.
- Lerner, N. B., Resnick, B., Galik, E., & Russ, K. G. (2010). Advanced nursing assistant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41(8), 356-362.
- Miller, B. A. (1989). *Changes in knowledge and attitude resulting from the training of nursing students on Alzheimer's disease (AD) and related dementia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Tech University, Texas, USA.
- Shin, K. R., Kim, H. Y., Cho, H. S., & Kim, M. Y. (2003). The development of the education program for female caregivers of the demented elderly at home. *Nursing Science*, 15(2), 39-50.
- Shin, M. S. (2007). *The effect of education program on main family member caregiving dementia ol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Tannazzo, T., Breuer, L., Williams, S., & Andreoli, N. A. (2008). A dementia training program to benefit certified nurse assistant satisfaction and nursing home resident outcomes. *Alzheimer's Care Today*, 9(4), 221-229.